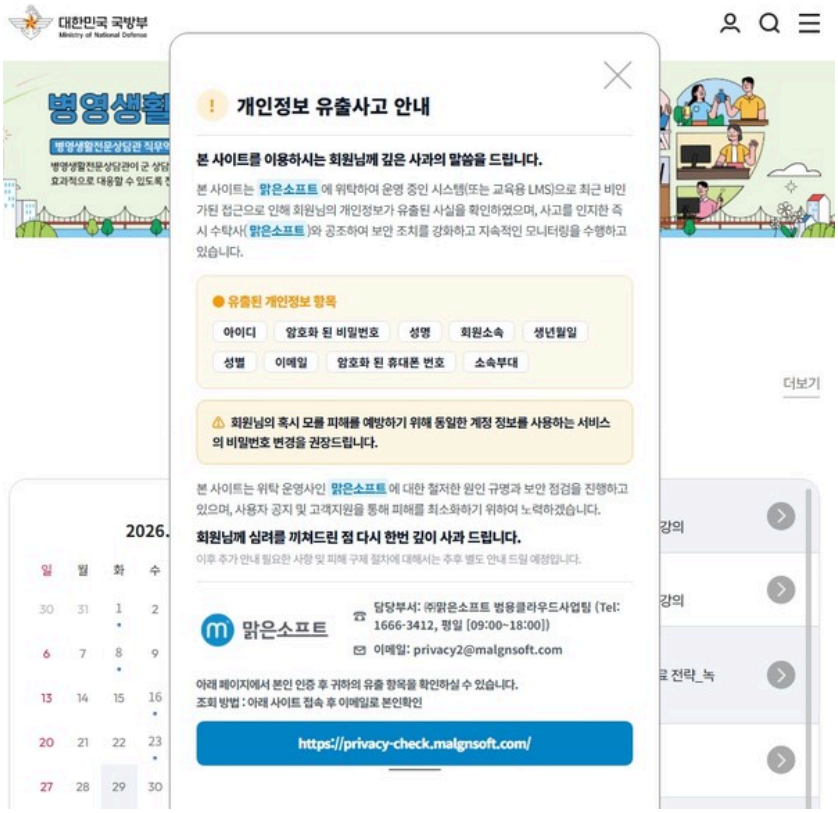
맑은소프트 해킹 피해 최소 15곳...계리사 자격·소속부대 정보도 털렸다

이한호 기자 | 입력 2026.09.29 16:33 수정 2026.09.30 09:48 댓글 0

맑은소프트 LMS 서버 해킹...최소 15개 사이트에서 피해
전문직 자격정보·소속부대 정보까지 유출...피해 범위 확대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안내문 ⓒ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 사이트

민주신문=이한호 기자 | 온라인교육용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제공하는 맑은소프트의 서버 해킹으로 보험계리사 자격등록번호와 학력·경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사이트 이용자의 소속부대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험계리사회와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 사이트를 비롯해 KOBACO 광고교육원, 서울·경기 자원봉사센터 등에서도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면서 피해 범위가 확산하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계리사회는 지난 27일 계리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 회원 일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Deep Inside


현대차, 9월 국내 판매 반등...기아는 3분기



무뇨스 현대차 사장 "투싼 하이브리드·싼

Only 민주


[단독] 서울시민 경제 데이터 공개 하루 만


[단독] 민원·단속에도 아랑곳?...경동택배,

공기업 센터


LH 사장 "집값 안정, 공급만으론 한계...대


홍문표 aT 사장, 임기 11개월 남기고 해임...

많이 본 뉴스

1 [에이스리서치]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39.1%...민주



2 [단독] 서울시민 경제데이터 공개 하루 만에 중단...



3 삼성·SK, 이달 'SEDEX'서 맞붙는다...차세대 HBM 공



계리연수원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맑은소프트 서버에 외부 공격자가 불법 접근하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소속,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암호화된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다. 특히 계리사자격등록번호와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까지 포함돼 총 14개 항목에 달한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회원별 실제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교육·전문직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KOBACO 광고교육원과 서울·경기·중앙 자원봉사센터,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KISEC),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수의학 교육 플랫폼 인벳츠 등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뿐 아니라 회원소속과 소속부대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맑은소프트는 해당 사이트의 LMS 관리·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인사노무관리협회, 로그원코리아 SAP 온라인교육, 이매진C&E, 데이타솔루션 AI러닝센터, 베토에듀 등에서도 관련 공지가 확인됐다.

29일에는 대한응급의학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맑은소프트가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현재까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사이트는 최소 15개에 달한다.

이번 사고는 맑은소프트가 운영하는 범용클라우드 교육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맑은소프트에 따르면 외부 공격자는 지난 19일 서버에 불법 접근한 뒤 20일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회사는 22일 문자 발송 대행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문자 발송 정황을 전달받아 공격 사실을 인지했고, 23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최종 확인했다.

맑은소프트는 공격자 IP 차단과 백도어 삭제, 서버 접근키 및 문자·결제·인증 연동키 교체, 관리자 2단계 인증 적용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사고를 신고했다.

다만 정확한 전체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맑은소프트는 개인정보 유출 항목과 규모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사고가 동일한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다수 고객사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수탁사가 피해 위탁사들을 명시해 일괄 신고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했다. 피해기관들도 개별 회원을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맑은소프트 측은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사에 유출항목과 유출시점, 유출경위, 조치사항 등을 담은 안내 메일을 지난 24일 네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고객사 회원들에게도 통지가 나갔다"며 "다만 대량 메일 발송으로 인해 현재 회원 수신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맑은소프트는 2011년 설립된 LMS 전문 개발사로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협회 등에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범용클라우드 LMS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서버 관리, 동영상 스트리밍, 회원·수강 관리 등을 임대 형태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4 삼성家, 英 '이건희 컬렉션' 총출동…정·관·재계 인사

5 10명 중 6명 "'암살자(들)' 역사 왜곡"…2030서 더 높


이한호 기자 gyeongbok3004@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맑은소프트 해킹 피해 최소 15곳…계리사 자격·소속부대 정보도 …
[공기업 센터] SH공사·도로공사·LH
현대로템, 대만 잇단 수주…철도 패키지 사업 '주목'
[민주 부동산] 금호건설·IPARK현대산업개발·한화 건설부문
동원산업, 식품 앞세워 '10조 클럽' 성큼…다각화도 순항
대우건설, 인도네시아 빈탄서 신규 투자사업 '노크'
[공기업 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한전KDN·한국수자원공사



0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주요기사



[단독] 서울시민 경제데이터 공개 하루 만에 중단…서울



NC, '아스오라' CBT서 흥행 타진…서브컬처 시장 정조준



HJ중공업, 대형 컨테이너선 연속 수주…반복 건조로 효



국감 앞두고 '증인' 신경전… 여야 핵심 타깃은



대원제약, 만성질환 라인업 강화…장기 처방 중심 전략



코리아자산운용, 그룹사 에너지·인프라 확장에 금융 통

민주신문 SINCE 1997

법인명 : (주)이십일세기뉴스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센트럴타워) 4층 | 대표전화 : 02-734-9114 | 팩스 : 02-774-3457
제호 : 민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87 | 등록일·발행일 : 2016-10-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6652 (등록일자 1997년 1월 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범